

나무 심고 개간하고...민간공원 개발사업 보상 노린 '꼼수' 기승

중앙·일곡공원 등 토지 소유자들 보상 목적 투기행위 잇따라 형질변경·수목식재 금지 불구 행정당국 모르쇠 일관 공원 갈아엎어 진흙탕물 동네 흘러 주민들 피해 호소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앞두고 후속 보상을 노린 개발·나무심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산림이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지면서 순식간에 밭으로 바뀌고 옹벽을 쌓는가 하면, 비닐하우스와 나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등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고발에만 의존하면서 '불구경'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광주지역 9개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따라 사업 예정지로 선정된 공원 곳곳에서 보상을 노린 임야 개간·나무식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수광·마북·복산·송암·일곡·운암산·신용·중앙(1·2지구)·중외공원 등 9개 공원 부지(786만8000㎡)의 90.3%(710만4000㎡)만 공원으로 남기고 나머지 7.7%(76만3000㎡)를 민간 개발업체

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뤄지기 전, 과실수를 심어놓거나 임야를 논·밭으로 바뀌놓으면 토지 보상 때 관련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원부지 곳곳에서 전(錢)나무 박기, 비닐하우스 조성, 밭 개간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개발사업 부지에서는 지난 2018년 말부터 임야가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어지고 있다. 해당 부지에는 석축을 쌓고 기존 보상을 제외되는 나무를 베어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나무가 촘촘히 심어지고 있다.

현재 공원부지의 경우 기존 조성된 것 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행위나 토지의 형질변경, 수목

식재·벌목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언제 조성됐는지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전에만 밭을 조성해놓고 나무를 심어놓았다면 토지 보상가를 높일 수 있다는 '꼼수' 때문에 불법 투기 행위가 마구잡이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공원을 깎아 갈아엎어버리는 바람에 비반 오면 흙탕물이 동네로 밀려들어오고 토사가 팜팡하수까지 흘러내려간다는 게 원주민들 하소연이다.

일곡공원 등 다른 공원부지에서도 애초 발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밭작물 재배를 하거나 닭을 풀어놓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빈 땅에 나무심기와 불법 비닐하우스 설치 등 각종 투기 행위가 만연해지자 지역 공원부지 축소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공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자연공원을 훼손하고 공원 규모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아파트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중앙공원 1지구 내 한 임야가 최근 밭으로 개간됐다.

으로 조성되는 비공원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가 애초 예상(3800억원)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면 수익성을 위해서라도 비공원부지 면적을 늘릴 수 밖에 없

지 않냐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고발이 이뤄지면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 민간공원 개발사업 부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

“아들아 아빠 왔다!” “잘 있었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세월호 유가족 선상 추모식

세월호 유가족들이 12일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침몰 해역을 찾아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을 위한 추모 행사를 가졌다. “아들! 아빠 왔다!”, “잘 있었어? 엄마가 많이 보고 싶어.”

가족들은 이른 새벽부터 경기도 안산을 출발, 8시간 넘게 달려 마주한 바다에서 국화 한 송이를 던지며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이름을 불렀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자 4·16재단 관계자 등 120여명은 이날 해경이 제공한 3000t급 경비함정을 타고 사고 해역을 찾았다. 묵직한 뱃고동 소리를 울리며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엄마는 기도하듯 두 손을 꼭 붙잡고 먼 바다를 향해 그리움을 토해냈고 아빠는 국화꽃이 자녀에게 전해질까 눈을 떼지 못했다. 하모니카를 불며 돌아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12일 오전 세월호 참사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하고 있다.

지 않는 자녀를 기억하는 부모도 눈에 띄었다. 해경 경비함정은 가족들이 헌화를 마치고 세월호 침몰 장소를 표시한 부표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순회하더니 목포해

경전용부두로 뱃머리를 돌렸다. 10분 만에 끝난 선상 추모식. 부모들은 이 추모식을 위해 1년을 기다렸다. 가족들이 선상 추모식을 진행한 건 2015년 이후 이번이 2번째다. 5년 만에

가족들은 담담한 모습으로 다시 참사 해역을 찾았다. 고(故) 이태민 군 어머니 문연옥 씨는 “시간이 지났어도 이 곳에 오면 마치 오늘이 ‘그 날’인 것 같다”며 “마음은 힘들지만 찾아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섭섭해 할까 봐 이곳을 찾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모식은 참사 당일인 16일 안산에서 예정된 추모제로 인해 앞당겨 계획됐다.

고(故) 이재욱군의 어머니 홍영미 씨는 “지금 어떤 마음인지 대답하기 힘들다”며 “이 마음을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느냐”고 심경을 대신했다. 가족들은 선상 추모식을 마치고 목포로 돌아와 목포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선체 외관을 확인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 중 이날 선상 추모식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16일 사고 해역을 찾아 다시 선상 추모식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초고령화 전남, 폐암·간암 등 중증암 환자 비율 높아

화순전남대병원 암센터 통계 남자 전립선암·여자 유방암 증가

광주·전남지역 신규 암환자는 감소 추세지만 고령화 인구가 많은 전남은 폐암·간암 등 예후가 나쁜 중증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암이 줄고 있지만 남자의 경우는 전립선암, 여자는 유방암이 각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화순전남대병원 광주전남지역암센터와 광주·전남지역암등록본부가 발표한 ‘암 발생률 및 암 생존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지역에서 새로 발생한 암 환자는 1만 6153명으로 지난해 1만 6568

명에 비해 415명 줄었다. 광주의 경우 3년 연속, 전남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2016년 잠시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총 5683명(남 2805명·여 2878명)이며 전남은 1만 470명으로 남성 5803명, 여성 4667명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암환자

의 5년 생존율은 광주가 72.6%(남 66.0%·여 78.8%), 전남은 65.0%(남 58.6%·여 72.4%)다. 전국의 5년 생존율은 70.4%(남 63.5%·여 77.5%)를 기록하고 있다.

암종류별 발생빈도는 광주의 경우 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 순이었으며, 전남은 위암·폐암·대장암·갑상선암·간암 순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담양군 SRF 분쟁 간접강제 소송 승소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고형폐기물(SRF) 사용 신고와 관련, 한솔페이퍼텍(주)의 담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2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지난 9일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한솔페이퍼텍이 제기한 ‘SRF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금까지 법적 절차는 대략 이렇다. 한솔페이퍼텍은 골판지 제조에 이용하는 소각시설 연료로 SRF만 사용하기 위해 담양군 신고를 거쳤던 기존 SRF 사용 신고를 변경하려다 주민환경권 등을 이유로 담양군이 불허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전남도 행정위에 냈고 행정위는 받아들였다.

담양군은 이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SRF 사용 여부가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

제로 변경된 데 따라 관련 허가의 재신청을 회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기존 전남도 행정위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행정위에 제출하며 반발했다.

담양군은 이에따라 회사측이 허가 재신청 등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SRF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렸고 전남도 행정위도 예전 처분에 대한 기속력(羈束力)·합부호 변경할 수 없는 효력에 어긋나지 않냐며 담양군 손을 들어줬다.

회사측은 여기에 반발, 법원으로 소송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담양군이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을 근거로 SRF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기속력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기존 처분이 사실에 의해 취소됐다’라든가 종전 처분이 이뤄질 때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한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개> *QR코드는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17285	1	광산구 월계로170, 제103동 제10층 제1002호 [산월동, 부영아파트] 84.9763㎡	아파트	214,000,000 214,000,000	
2019타경 17704	1	광산구 수동로123번길75, 제102동 제16층 제1603호 [신가동, 수안원양수자인아파트] 84.8894㎡	아파트	423,000,000 423,000,000	2019타경 19007 [호 84.8894㎡]
2019타경 17810	1	서구 지평로107, 제110동 제19층 제1906호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 59.94㎡	아파트	219,000,000 219,000,000	
2019타경 17957	1	북구 하백로46번길9, 제101동 제20층 제2008호 [매곡동, 매곡동부림아파트] 59.79㎡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2019타경 18561	1	북구 매곡동 42-2 제101동 제19층 제1907호 84.87㎡	아파트	158,000,000 158,000,000	
2019타경 18776	1	남구 제석로80번길5, 제102동 제6층 제603호 [봉선동, 봉선동제일종합채널리트파크] 84.9639㎡ [매곡동, 매곡동부림아파트] 59.79㎡	아파트	694,000,000 694,000,000	2020타경2425 [호 84.9639㎡]
2019타경 75243	1	광산구 첨단중앙로181번길88-21, 제107동 제2층 제202호 [월계동, 대우아파트] 199.90㎡	아파트	258,000,000 258,000,000	
2019타경 76291	1	광산구 장덕로55번길45, 제105동 제12층 제1203호 [장덕동, 수원지인] 121.5193㎡	아파트	600,000,000 600,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9타경 74387	1	북구 신안로 151-11 139.3㎡	대	132,756,990 132,756,990	일괄매각, 제시외복구 경양로97번길 7-9 41.58㎡ 부속건물 변소, 창고 2.97㎡ 옥실 2.7㎡ 제시외 창고 등 28.8㎡
2019타경 75151	1	동구 지호로127번길 25-1 24.12㎡ 제시외 창고 2.8㎡	단독주택	161,886,840 161,886,840	일괄매각, 제시외 창고 2.8㎡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16992	1	장성군 삼서면 삼계리 456-7 61㎡ [최저매각가격은일부가도로로서용종용임야감안하여제한받는가격임]	전	1,403,000 1,403,000	현황전및일부주택 지대도로로서용종용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9타경 16992	2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63-45 185㎡ [소유지이상의분묘3기가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채로인하여제한받는가격임]	전	4,070,000 4,070,000	행지
2019타경 17322	1	나주시 남평동 후산리 산11-1 62380㎡ [면적과자이상분묘51기소재, 일부면적에 식재현고사리및비닐하우스3동매각제외]	임야	810,940,000 810,940,000	매각으로인하여여말소되지않는선순위가등기있음, 행지
2019타경 17452	1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510 893㎡ [공유자이성진지분17분의1, 갈나무 등 46주 및 석시성, 관수시설 [제시외수목등매각포함] 2/17]	답	46,036,370 46,036,370	일괄매각, 목축1, 2지분매각및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축1현황과수원, 목축2현황과부지 [현상회복여지있음]
2019타경 18059	1	영광군 법성면 상당리 882-6 3239.4㎡	답	48,591,000 48,591,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9타경 18264	1	나주시 빛가람동 227-9 329㎡	대	289,520,000 289,520,000	주거나지임
2019타경 72732	1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24-1 25190㎡ 제1시외 다용도상 등 65.4㎡	제임야	877,332,000 877,332,000	일괄매각, 목축1제시외건물매각제외, 컨테이너3동매각제외
2019타경 75625	1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277 688㎡ [공유자이재용지분3분의1전부, 농지취득자격증명요, 현황확인, 대나무등수목매각포함] 1/13지분]	전	20,866,300 20,866,300	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수권1회로제한
2019타경 76444	1	서구 제하동 168-3 602㎡ [제시외 수목 감나무 등 일괄 [연고지이상분묘3기소재, 제시외수목매각포함, 지적도상행지]	전	202,870,000 202,87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자동차, 중기]					
2020타경 60278	1	사율면부지:광주 광산구 신가령로24번길 1층(신가동, 23-11) 등록번호:14오2121 차액:K7 연식:2011	자동차	8,000,000 8,000,000	보관장소:광주남원주차장
2019타경 16886	1	남구 주월동 618-6 565㎡	도로	288,150,000 288,150,000	

● 공문 부속문의 연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보상 목적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권인양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대역매각에 선임한다. 불법행위 변경으로 인한 손상책자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합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권자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10%이상 실효도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권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를 공유자 우선 매수권금액으로 한다.
2. 매각기일 2020. 4. 27. [월] 14:00
3. 매각장소 담양군청 4. 4월 13일 16:00
4. 매각장소 담양군청 5. 광주지방법원 입찰방정
5. 매각방정
① 입찰방정에 비하여 기일당첨표에 사인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여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은 최고가매수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보증금과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서(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보증서와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보증의 투입이 확정되면 관리를 개설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권인임을 증명하고 최고가매수권인으로 정하고, 최고가 매수권을 입찰한 시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과 함께 공동 매수권인으로 정한다.
④ 최고가매수권인과 차순위매수권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가 매수권인은 매각기일에 매각허가 신청서와 대금납부서, 입찰결과를 증명하고, 매각허가결정을 확정된 대금지급기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결정일에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를 실시한다. 다만, 매각결정일로부터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지정 매수권이 매각대금 및 지정허가, 이들을 납부하면 대금납부서 사유해, 당초 매각허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기입유류등은 순위 관계없이 합적으로 소멸된다. 소유권이전허가 및 지대권이나 기입유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기부와 지방공채를 납부한 후 등기부등본수출본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국민연금과 지방세 등을 기한 상환서를 발행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제정은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대금의 지급은 상가건물에 최선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주지 등본등본인정일과 일치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목적시설을 가진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임차인들의 용량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결과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인사과(상) [담양군 법원에]에 제출하여 제공받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용량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준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포된 (매각결정일)의 일괄행위 등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결과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법원에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찰보증금 증빙한 위장장 또는 사영인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농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요하지 않음에 소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⑤ 국외거주 외국인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 경매권 종료, 또는 매각이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⑥ 신청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종의 매각기일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출생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 및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⑦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⑧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판결명보전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및 정보의 발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청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들의 위하여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각결과가 상환이나 하고, 대법원판결명보전이나 손해배상의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공되는 열람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서도 게시된 매각결과와 공고나 법원 매각결정명세서 등을 꼭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4. 13.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정현주